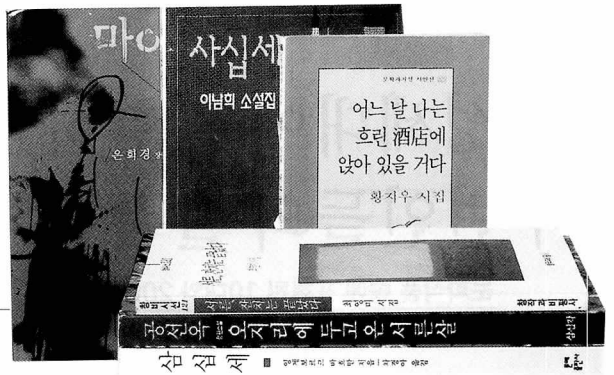


# 열망과 이별하고 쓸쓸함 받아들이는 나이

문학 속에 나타난 30~40대



30대에 요절한 가수 김광석은 이렇게 노래했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 … / 또하루 멀어져간다 /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 … /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서른 즈음에》). 그의 노래 속에서 서른은 “작기만한 내 가슴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반성하면서도 “뛰어가는 내 가슴속에 더 아무것도 채울 수 없네” 라고 한탄하는 나이이다.

20대에 자신이 늘푸른 나무라고 생각했지만 서른에 이르면 서서히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고 더 이상 늘푸른 나무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 수많은 열망들로 잔뜩 부풀어올랐던 가슴은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 서서히 비어간다. 서른은 그러므로 그 많은 열망들과 “매일 이별하”는 나이이다.

**서른, 더 이상  
꿈 꿈이 없는 나이** 시인 최승자의 시처럼 서른은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삼십세》) 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서른은 “시큰거리는 치통 같은 흰 손수건을 내저으며 / 놀라 부릅뜬 흰자위로 애원하며” 온다. 서른을 맞은 이들은 “이제 새로 꿈 꿈이 없는 새들”이다. 그들은 “추억의 끌고다로 날아가 뼈를 묻고 / 흰 손수건을 떨어뜨리고 / 부릅뜬 흰 자위가 감긴다”. 결국 그들은 어쩔 수 없고 점점 빨라지는 시간의 흐름에 “오 행복복복행복한 행복”을 하게 되는 것이다. “기쁘다 우리 철판깎았네”.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서른, 잔치는 끝났다》) 하고 시인 최영미는 되묻는다. 최영미에게 서른은 “잔치가 끝”난 나이이다. “술 떨어지고, 사람들은 하나 둘 지갑을 챙기고… / 마지막 썸을 마치고 제각기 신발을 찾아 신고 떠났다”.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서른에 이르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끊임없이 호소하고 싶은 언어들로 들끓게 되기도 한다. 잉게보르크 바하만의 《삼십세》(차경아, 문예출판사)의 언어들이 보여주는 것 또한 바로 그런 들끓음이다. 소설은 때로 산문의 안정성을 벗어나 때로 장시처럼 격앙되며 숨차게 흘러가고 있다. 이 소설은 29세 생일이 되는 날부터 30세에 이르는 1년 동안에 일어난 의식의 갈등과 모험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을 읽다보면 서른이라는 나이는 인생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이 인생의 함정에 온몸으로 도전해 역설적으로 그림자처럼 중복되는 인생, 괴물같이 거

대한 병증을 지닌 인생을 추구한다.

그러나 서른이 단지 모든 열망들의 종착역만은 아니다. 공선옥은 《오지리에 두고 온 서른 살》(삼신각)에서 “그래, 이제 혼자서는 거야. 서른 살의 절망은 또 다른 희망이 아니겠니. …서른 살의 절망은 그 얼마나 값진 절망인 것이냐. 이제 너는 너의 온전한 희망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라구. 달려가라구” 하며 우리에게 희망의 전언을 던진다.

**“내가 내 나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흔** 마흔을 일컬어 불혹(不惑)이라 했다.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막상 마흔을 맞은 이들

에게 마흔이라는 나이는 흔들리지 않는 나이이기보다는 억울하고 당혹스러운 나이이다. 마흔은 “어느 새” 깨닫게 되는 나이기 때문이다. “어느 새” 마흔을 넘긴 시인 황지우는 “내가 내 나이에 당황”하며 “머리를 득득 굽는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한다(《11월의 나무》). 시인은 “그림자 위에 / 가려운 자기 생을 마구 터는” 11월의 나무처럼 “병원을 나와도 병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처럼 / 내가 내 나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마흔은 비로소 세상과 화해할 수 있는 나이기도 하다. 이남희의 단편소설 《사십세》에서 마흔을 맞은 딸은 가부장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던 아버지와 화해를 준비한다. 그것은 어쩌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선긋기”하던 당위의 세계를 지나 이제 “거대한 이론보다는 사소한 것들에 매료되어”가는 나이에 이르렀기 때문일 것이다.

몇 살까지 사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마흔에 이르면 어쩔 수 없이 살아갈 날들보다 살아온 날들이 더 많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미래를 계획하기보다는 자주 과거를 되돌아보게 된다. 은희경의 《마이 너리그》(창작과비평사)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회상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회상의 끝이 꼭 행복한 결말은 아니다. “끊임없이 투덜대면서도 어쩔거나 가족을 부양했고, 그런 틈틈이 겸연쩍어하면서도 모르는 척 자질구레한 죄를 저질렀다. 그러는 동안 우리 모두 공평하게 사십을 넘겼다. 만수산 드렁침. 삶의 여정이란 것이 사실로도 침처럼 하잘것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이었음을 깨달을 만한 나이가 된 것이다”에서처럼 회상의 끝은 쓸쓸한 자신들의 삶을 문득 깨닫게 한다. —김장근기자